

* 팀NO : 2019- 035

2019 단기선교팀 신청서

선교위원회 확인

1. 국가팀명 : 네덜 (/ 팀)

공항 : 카르만두

*항공권구매: (자율, 교회)

2. 사역지 : 카르만두 고르카

①

3. 사역기간 : 2019년 9월17일(화) ~ 9월24일(라) / (7)박(8)일

서기

지도목사

위원장

[서기 서명]

[지도목사 서명]

[위원장 서명] 6/16

NO	직책	직분	성명(한글/영문)		교구	CMTC	교적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소	E-Mail
1	팀장	장로	배종락	BAE JONG RAK	11	0	94-108	[Redacted]				
2	총무	장로	정선현	CHUNG SUN-HYUN	15	0	870					
3	서기	장사	서창원	Seou CHANG WEAON	11	0	2006-462					
4	회계	장사	김현정	Kim Hyeon Jeong	11	0	2003-0221					
5	의료	장사	이득재	Lee Dock HAE	3	0	82-601					
6	장원	장로	윤석민	Yoon Suk MIN	15	0	84-559					
7	장원	장로	석영식	Seok Young Sik	8	0	1980					
8	장원	장사	김종균	KIM JONG GYUN	2018-0297	0	2018-0297					
9	장원	장사	신우성	SEON Woo SUNG EUN	15	0	79-1186					
10												
11												
12												
13												

* CMTC선교훈련 및 선교수련회는 출발 5주전까지 필히 수료하여야 출발할 수 있습니다.

* 비자를 받는 팀은 여권과 함께, 비자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여권을 COPY(B5 SIZE)하셔서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 사진은 반드시 6개월이내이거나 여권과 다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E-Mail Address는 팀장, 총무, 서기, 회계만 기록요망.

담당

분과장

6/9

황수안

6/9

김재명

소 감 문

팀장

/

성명 : 배종락 정로 팀명 : 11-1팀

선교지 : 네팔, 카투만두, 포카라, 고르카,
두모레, 지역

교구 : 11교구

사역일자 : 2019년 09월 17일 ~ 09월 24일

선교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신
시켜주시는 체험의 일정이었다. 팀원들끼리 하면서 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하였지만 모든 일은 주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5박5일 동안 천문을 살아왔던 현지 선교사님과 연락하고
일정을 조율하였으나 종교개혁 금주법 실시로 인해 실수로
부담이 되는것을 느껴 자체적으로 준비를 변경 하였다.
팀원들끼리도 모든것이 부족하였고 장로, 은퇴목사님, 천사, 성사기
함께 하는 연합회원으로 구성되어 한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다. 지난 주일에 주님을 향한 나뭇의 교회중
선악을 제단한두 교회의 성도와 우리교회 한성령에게서 자비함으로
이제껏 사신 교회에서 1박2일을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자신을 통해 영육간 환경의 교회를 흔들며 깨닫고 바르고
주님만 믿고서 소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보게 되었다
교회부자들 구원한 은혜로 가장 보람있었던 동네 동안 주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지만 주님의교회가 최고의 주님을 갖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 갖는 교회가 되는 일을
보게되고 그 안에서 성가탄 젊은 세대의 꿈이던 목회자의 꿈을 열의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게 되었다. 1박2일간의 수련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방해와 밤새 불행회를 방해하는 종교 사제에
250명여명의 뜨겁게 목회자는 찬양과 이로운 사탄의
방해와 핏발을 능히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네팔의 마케의 사교의 비전을 제시 해주시는 선교사님의
만남. 모든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선교를 마치면서 핏발을 감싸주신다는까지 선교사님을 따라가야 다짐한다.

정신현 장로

소 감 문

성 명 : 정신현

팀 명 : 11-1팀

선 교 지 : 네팔, 카투만두, 포카라, 고르카,
두모레, 지역

교 구 : 15

사역일자 : 2019년 09월 17일 ~ 09월 24일

「생신화관위에 인도한 생신취업 중의있던 선교를향한 영감을
살리신 네관의 VISION TRIP」

1. 초대민족에서 탄생하여온 유산문화적으로 변화하는 네관에
대하여는 복음의 정은인물들과 그들을 가운는 현지선교사들.
- 한국으로서 치명적위해 현지의정도를 특한 복음의 일관성을키우는 전방
- 연약한 한두사람의 충성도가 기독교의 개종이 다스워가한 것을 이용한전방.
2. 많이 잃은것에 의하여 회복의 은혜는,
- 지진으로 큰파해를 받은 곳에 흥한 선교회 의 유산적 전통이 큰 보수의 교제로
지이저가게 하였음
- 새로운 종교적으로 보강체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가려서방을통하여
더 많은사람의 교제와 사회적관부가 가능케하였음.
3. 구시문제가 있어
그동안 서로다른 보수로 각교구에서 세워졌던 각교회 의 교회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서로에게 해 협력 하도록 각교회들이
모두같이 같은복음으로 자나고 묶여있는 보수들을 기대함.

소 감 문

성명 : 서 창 원 팀명 : 네팔 11-1팀

선교지 : 네팔 (카투만두, 포카라, 고르카, 지역)

사역기간 : 2019년9월17일(화)~24일(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저에게 네팔 땅에 복음을 전파 하라는 고귀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사명에 순종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선교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사역을 떠나기전 내 가슴 속 깊이 품은 첫번째 문구이며,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예비한자에게 명령하신 뜻 깊은 선택의 사명이다. 이번 사역은 특이하게 구성된(목사1명, 장로4명, 권사1명, 집사3명)선교팀을 네팔 땅 으로 보내심은 9명의 팀원들 에게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네팔 땅에 흩어진 죄악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손길을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팔에 현재의 사정과 그 동안 뿌린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 하였는 가를 현재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차후 닥쳐올 네팔 땅 사역에 주님의 복음 전파을 열매 맺어야하는데 이에 대한 중요한 정탐선교가 되기를 주님은 소망 하시고 파송 하셨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전사간들을 이 일을 위해서 바쳤듯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일생을 걸고 도전할 만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은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요, 사망의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것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사역일 것입니다. 현지의 문화와 선교 사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봅니다.

현지의 생활	현실적 감각	현지활동	비 고
이곳에서는	1.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봅니다. 2.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느낍니다. 3.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난들을 듣습니다	○도시와 농촌과 빈 부 격차 심하다. ○화폐비율 : 10.7:1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상황화 선교	○스테반의 죽음으로 시작된 핍박을 피하기위해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땅 끝으로 흩어져 갔다.(행8:4) 비교	○종교 말살 정책은 아직 없으나, 종교 탄압 정책은 실행 되었다. ○종교 개정법 발효	○노방전도, 못함 ○방문전도, 못함 ○지방은 아직 종교탄압 실감이 낮은편이다 ○카투만두의 10개 이내 도시는 종교탄압이 실행 중이다 ○카투만두 시내 외곽 지역 교회 폐하여서 창고로 사용하는 현실 목격 하였다.
상황화 선교	○지진으로 인한 결과 ○네팔 국익에 필요한 사역은 암시적 묵인한다.	○개정난 실업자 증가, 민심 악화, 복구작업 저하, 환경 악화 전기 사정 악화	○자체적 복구운 국가경제 악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흐름 진행 지속될 전망이다.
상황화 선교	○네팔과 한국 관계 : 한국에 관한 인지도 매우 높다. ○한국인에게 매우 우호적이며, 암시적 묵인한다.	○한국어 합격하면 한국 비자3년 받을 수 있는 자격 확보 ○한국어 합격이 고시 패스보다 힘들다한다.	○네팔인 한국취업 희망 1위 ○현지 한국 선교사가 한국어 학원운영, 네팔 현지인 합격자 배출
상황화 선교	○기업화 선교 : 네팔 국익에 필요한 사역은 암시적 묵인한다.	○병아리 사역선교(닭 농장 근무)학원생 일자리 창출, 신앙생활 배양	○학원에서 한국어 양성 ○기숙사, 생활비 보조 ○합격하면 한국에 취업 알선 학생 관리
상황화선교(목회자 양성 목표)	○국내한국교회 생활 및 취업알선 → 네팔 선교자와의 관계 성립	○한국에서 목회자로 양성하여 네팔에 파견	○네팔에서 적절한 선교 전략으로 본다. 현재 실시 하고 있는 실정 임.

▶ 결론 : 상기 조사 내역 (정탐선교)을 참조 하여 볼때 네팔 선교를 발전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준비 과정을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가 주님의 은총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소감입니다.

선교 소감문

● 팀명 : 네팔11-1팀 ● 사역지 : (고르카 지역) ● 사역기간 : 2019.09.17~09.24/7박8일

3교구 이득해권사네팔단기선교1팀

■어릴때부터 선교를 늘 꿈꾸면서 기도하며 11개국의 나라에 단기선교를 다니면서 목말라했던 부분이 현지에 가서 선교팀들이 복음만 전하고 영접기도를 시키고 뒤돌아 서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교회들이 절대 필요하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가득 하였습니다.

인도와 네팔을 여러해 동안 우리 가족이 단기선교를 다니던중 네팔을 중점 사역지로 정하고 교회를 세우게 해 달라고 간구 하던중 하나님의 은혜로 네팔 현지 목사님의 권유로 카트만두에서 5~6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는 Dumre(드므레) 지역에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3년에 걸쳐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거점으로 하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8년동안 진행하는 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너무 부족함을 느껴 성경공부와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아카데미, 평생대학원, CMTC 훈련 등을 받으면서 재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하신 장로님들, 은퇴 목사님, 집사님으로 구성된 선교팀과 함께 팀훈련을 통하여 새롭게 준비하고 네팔땅을 다시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팔에서의 사역은 과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지역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심방 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그들도 뜨겁게 복음을 붙들고 어려운 힌두교의 핍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격려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Matthew church 에서의 1박2일 동안 포카라지역의 7개교회와 고르카지역1개 교회와 연합하여 250 여명의 등록자와 100 여명의 미등록자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부흥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치유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과 뜨거운 열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귀들의 공격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1분의 은퇴 목사님과 4분의 장로님들의 강한 영성이 역사한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선교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깊숙이 개입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 네팔의 교회들이 진리로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소감문 [네팔1 - 배종락 팀] - 11-1팀 윤 석 민

2019. 9.17~24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선교사역 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 우리들은 마태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는데, 주님은 첫째 고르카 부활교회와 “바브”를 목회자로 세우는 계획”을 우선하셨고, 둘째. **충현 선교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 주셨다.

1. **Gorkha 부활교회**는 위치 면에서, 또 성도들의 열심 면에서 탁월했고, 교회 지도자 ‘바브’의 소양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한국과 두바이로 떠났지만 교회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여목사 찬디카와 교회를 지켰다.

- 수 차례 방문으로 지도자 덕목을 가진 것을 알고, 김현정 집사님은 목회자로 키우려고, 양자를 삼았고 도울 계획을 찾아왔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눈으로 보게 된 것이다.

- 지도자 ‘바브’의 양들 사랑하는 마음은 첫날 만남에서도 우리들에게 **어려운 자, 병든 자들을 심방해** 주기를 강청 했다.

: 결국 몸 저 누워 계신 88 세 할머니(부활교회 사역자 바브의 절친이며 두바이로 돈 벌려고 간 친구의 할머니, 지역의 최고령 지도자)는 이틀 후 수련회 기간에 소천하셨다. 장례식 참여가 전도의 좋은 기회라 여겨 다음날 참석을 서둘렀지만 시신을 강가에서 화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포기하게 되었지만, 결국 임종예배를 우리들에게 감당 시키신 것이다.

- 사역 마지막 날 큰 기대 없이 **이요한, 배희연 선교사 부부**를 방문 하였다. 모범적 선교사로 평가 된 분이라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의 갈 길을 지도 받기 위한 **걸음** 이지만 그들의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찾는 예비 된 축복을 받았다.

심지어 ‘바브’의 목회자 훈련의 길을 약속 받았는데, 선교사님도 기도제목에 이루었다고 기뻐하셨다. 여학원의 학생들 약 40 명의 복음화에 전력하며, 농장을 운영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한국에 간 선배들이 보내 온 현금 등으로 자립이 가능하지만 **신앙의 본이 없어 복음을 가진 힌두청년을 보내 달라는 기도** 중인데 귀한 분을 만났다면 오�히려 감사하며 빨리 만남을 재촉 하셨다.

- 선교사님은 농장의 학생들의 영적 리더로 보내 주심에 기도의 응답으로 받고 기뻐하셨고, 배팀장과 김집사는 바브의 신학의 길을 열어 주심에 감격하였다. 심지어 이 문제로 대화를 하고 있던 중에 걸려 온 바브의 전화는 우리들을 소스라치게 하였다.

6

2. **농장 운영의 노하우**(지역 주민과 유대, 자립으로 이루어지는 건축, 학원과 농장 운영 노하우 등)는 **선교지 교회의 자립을 이루었다** - 이는 네팔 선교지 교회 (부활교회, 마태 교회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보너스로 받은 은혜)

♡배 팀장의 성령 인도 받아 진행하는 여호수아 리더십을 배웠고, ♡공항에서 짐 내리는 것이 끝나기가 무섭게 내린 억수 같은 폭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을 얻었다.

♡ 종교법 변경으로 포교가 불가하며, 현지인들의 배척에 맞설 수 있는 네팔 선교 방향 정립, 선교지 교회 자립 방법을 습득하였다. 이는 타국에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이 된다.
- 심지어 한국에 온 근로자들에게도 공동체 훈련을 통해 적용하면 신앙을 우선으로 해야 할 저들의 산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집념을 접어 둘 수 있는 신앙지도의 길이 될 것이다.

한국에 보내면 달라지는 믿음의 네팔 제자들을 걱정하는 두 분 선교사님의 소원대로 개인정보를 공유하여 영육간 지도 관리 할 수 있는 장소와 리더십을 제공으로 저들의 영성과 삶을 지도편달 하여 명실공히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 하기를 원한다.

[기도제목]

1. '바브'의 목회 길 형통하고 부활 교회의 부흥, Gorkha 지역 복음화
2. **Dumre Matthew Church** - 새로운 사역자 보내 주소서 + Pastor **Amrit pun**, New Light Church **옴나즈** 목사와 관계 개선으로 목회 동반자
3. **Pokhara Glorious Church** 새 성전 건축이 조기 성사
4. 이요한 선교사 사역 (**Nayabato Gil** 학원 및 농장, **Hostel** 복음화 (학생 40 명)를 현지인들에게 위임하고, 귀국하여 은퇴 목사 지원 사업 시작.

8. 김종균 목사

소 감 문

성 명 : 김종균 팀 명 : 11-1팀 선교지 : 네팔, 카투만두, 포카라, 고르카.

두모레, 지역

교 구 : 새순

사역일자: 2019년09월17일~09월24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네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곳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이요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선교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팔 선교1팀이 구성이 되고 단기 선교사의 훈련은 때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은사를 확인하고 개발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때론 힘이 든다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훈련중에 맑은 전투에서 피와 같다는 군 훈련소의 조교의 구호를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에 도착했을 때는 썰레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 종교법이 개정되어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선교 전략을 갖고 왔지만 왠지 답답한 마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Gorkha Resurrection Ecclesia Church를 이번 선교사역 활동의 거점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충현의 선교팀이 복음의 씨를 심은 곳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수확되는 곳이었습니다.

배종락 장로님 네팔1팀장의 말씀은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선교를 했으며 선교를 하는 가운데 도로 절벽아래에서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후에 2015년4월25일 지진으로 그 마저 파괴가 되어 예배 처소 마련을 위해 충현교회에서 보낸 구제 헌금으로 땅을 매입하여 교회를 건축하고 2016년 10월1일에 헌당을 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언덕위에 약 70개의 계단을 올라 가야했습니다. 계단이 없으면 도저히 올라 갈 수 없는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땅을 매입한 후에 계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이 계단은 천국 계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신 가정을 심방을 했습니다. 길도 험하고 환경이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은 침상에 누워서 전혀 거동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배종락 장로님의 영접기도(네팔어)를 하였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그 할머니 성도님이 소천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식사로 섬기고 담임 목사님의(찬디카) 생일 축하 등의 모든 순서는 초대교회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Dumre Matthew church 에서의 부흥강사 Amrit Pun 수련회는 과거 한국교회 1970년대 부흥회를 다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1박2일의 기간이지만 버스로 오토바이로 여러 지역에서 (245명 접수) 참석을 했습니다. 정전이 되어 예배당안은 온통 무더위로 숨 막힐 듯 했지만 한 사람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예수님의 이야기(The Story of Jesus for Children)상영은 예배당안이 숨소리 마저 들리지 않아 마치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듯 했습니다.

선교 팀들은 준비한 간식과 선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이 민족과 나라에 선교에 헌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개정된 종교법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고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옮기려고 계획한다는 이 요한 선교사님(Nayabato Gil Pvt)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발걸음 사역을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교를 위한 충현의 성도들의 기도와 선교팀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하면서 네팔 단기 선교의 소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팔 1팀 단기 선교사 김종균

소감문

Jaimashi ~

9, 네팍1팀 선우성은 집사

같은 마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도지어다
디도서 1:4 아멘.

선교 훈련서 한 장로님께서 연고도없는 9명의 팀원이 이렇게 만나서
한 팀이 되고, 성경님이 인도하시는데로 우리 팀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한다는 말이 현실로 나타낸 선교였습니다.

폭우와 진흙으로 이끄러운 길에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 넘어져도,
매일 숙소를 옮기며 주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산 위의 집이라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강행군 속에서도 분평 분만 전혀없이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선교 현장
이기도 했습니다.

네팍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9명의 디도를 사용하여 '바브'라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직접 보여주신 성경님의
인도하심에 강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 네팍팀을 만들어 주시고
네팍로 보내 주시고 성경충만한 사역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